

The 9th Working Committee Meeting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9차 실무위원회
2013. 9. 10~9. 13

대한민국 전라남도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Jeollanam-do Province South Korea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환 영 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회장
대한민국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및 농업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재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회원단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라남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에 창설되어 20여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각 분과위원회가 더 큰 활약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국의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력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전과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세계를 리드하는 발전의 축이 이미 동북아지역으로 옮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중요한 외교정책의 하나로 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를 통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회원국 여러분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고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등은 전라남도가 자랑하는 특산품중의 하나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그리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품격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전라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꽃피어난 다양한 문화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이 발전하는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국의 참가자 여러분!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여러분들이 속한 자치단체와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다. 저희 지역과 여러분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전라남도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재효

존경하는 박준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님! 배용태 실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총장 김재효입니다.

신농업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메카인 전라남도 영암군에서「제9차 NEAR 실무위원회」개최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라남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실무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에서 제10대 연합의장단체로 선임된 전라남도가 개최하는 것으로, 회원단체간 의견조정 및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현황을 점검하고, 연합의 각종 현안사항 등 회원단체의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고, 2014년 제10차 총회의제를 선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NEAR 창설 20주년에 해당하는 2016년에 개최될 뜻깊은 제11차 총회 개최지 선정과 분과위원회 운영 및 신설 등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2014년 제10차 총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이라는 연합의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무국 운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동북아시아에서는 오랜친구(老朋友), '라오핑유'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속담에 "오래된 친구는 새로운 좋은 친구 2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설 17년이 경과한 NEAR는 이제 모두 오랜 친구가 되기에 충분해졌습니다.

이번 실무위원회 회의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얻기 희망하며, 풍요로운 녹색의 땅, 이곳 전라남도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여정이 되시길 빌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행사일정 및 연설.발표자 현황

행사일정 / 연설.발표자 현황

연합 주요활동 보고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 보고(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사무국 주요활동 보고(NEAR 사무국)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환경분과(일본 토야마현)

교육문화분과(일본 시마네현)

방재분과(일본 효고현)

변경협력분과(러시아 이르쿠츠크주)

과학기술분과(대한민국 경기도)

해양어업분과(중국 산둥성)

에너지.기후변화분과(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러시아 마가단주)

NEAR 신 비전 연구 보고(NEAR 사무국)

회원단체 대표 발표(NEAR발전방안 제안 등)

협력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중국 후베이성)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심화(닝샤후이족자치구)

실무위원회 의제

2016년 총회 유치 신청

몽골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러시아 자바이칼변경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경제통상부과위원회 명칭변경(대한민국 경상북도)

체육분과위원회 신설(러시아 사하공화국)

연합헌장개정(NEAR 사무국)

참고자료

연합헌장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NEAR 회원단체 현황

행사일정 및 연설.발표자 현황

- 행사일정
- 연설.발표자 현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9차 실무위원회

<행사일정>

일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9.10 (화)	1400~21:00	420'	. 등록, 석식	호텔
	21:00~		. 자유시간	
9.11 (수)	06:30~08:30	120'	. 조 식	호텔
	10:00~10:05	05'	. 개막식 -진행안내	진행 : 전남 국제협력과 김홍사 국제교류계장
	10:05~10:15	10'	. 전라남도 홍보동영상	
	10:15~10:25	10'	. 환영사(배웅태 전남 행정부지사)	
	10:25~10:30	05'	. 축사(김재효 NEAR사무총장)	
	10:30~10:50	20'	. 기조연설(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10:50~11:00	10'	. 기념촬영, 실무위·농업분과위 안내	
	11:00~11:15	15'	. coffee break	
	11:15~11:25	10'	. 실무위원회 개최 , 인사말	주재 : 전남 경제과학국 정순주 국장
	11:25~12:00	35'	. 연합 주요활동 보고 -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보고(닝샤) - 연합사무국 주요활동 보고(사무국)	
	12:00~13:20	80'	. 오찬(호텔) 및 자유시간	
	13:20~14:10	50'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8개) - 환경/교육문화/방재/변경협력/과학기술/ 해양어업/에너지·기후변화/광물자원개발·조정 . NEAR 신비전 연구보고(사무국)	
	14:10~14:25	15'	. coffee break	
	14:25~14:45	20'	. 회원단체 대표 발표 (후베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14:45~15:35	50'	. 실무위원회 의제발표 - 2016년 제11차 총회 유치신청 (우부르항가이아이막·자바이칼변경주·이르쿠츠크주)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명칭변경(경상북도) - 체육분과위원회 신설(사하공화국) - 연합헌장개정(사무국)	
	15:35~15:50	15'	. coffee break	
	15:50~16:50	60'	. 주제토론	진행 : NEAR 사무총장
	16:50~17:50	60'	. 합의문 작성 및 결과 발표	전라남도
	17:50~18:00	10'	. 폐회 및 기념촬영	
	18:00~18:30	30'	. 휴 식	
	18:30~20:00	90'	. 공식만찬	호텔, 주재: 권오봉 전남 경제부지사
9.12 (목)	06:30~08:30	120'	. 조 식	호텔
	08:30~12:30	240'	. 현지시찰(중도염전)	

	12:30~13:30	60'	. 오 찬	현지
	13:30~18:00	270'	. 현지시찰(장흥 우드랜드)	
	18:00~		. 만찬 및 숙박	현지
9.13 (금)	06:30~08:30	120'	. 조 식	호텔
	09:00~		. 참가단체 귀국	

<연설 및 발표자 현황>

구분	연설(발표) 제목	국가	성명	기관 및 직책
기조연설	동북아지역간 초국경적 협력·교류강화 필요	한국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연합주요 활동 보고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 보고	중국	양신론	닝샤후이족자치구 외사판공실 부주임
	연합사무국 주요활동 보고	NEAR	김동성	사무국 사무처장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이소베 마사루	토야마현 관광지역진흥국 차장
	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일본	야마모토 미카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주임
	방재분과위원회	일본	모리야스 히데카즈	효고현 국제교류과장
	변경협력분과위원회	NEAR	오명호	사무국 기획총무계장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한국	윤영경	경기도 경제정책과 주무관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중국	쉐지우밍	산둥성 해양어업청 과학기술 및 대외협력처장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한국	김광목	대구광역시 국제교류담당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	러시아	발표자없음	책자로 감음
NEAR 신 비전 연구 보고		NEAR	박창호	사무국 기획총무과장
회원단체 대표 발표	협력추진을 위한 공감대형성	중국	장샤오메이	후베이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교류 협력의 심화	중국	양신론	닝샤후이족자치구 외사판공실 부주임
실무위원 회 의제	2016년 총회유치 신청	몽골	다쉬공헤우 르함오롤마	우부르항가이아이막 개발정책과 실무자
	〃	러시아	온다르 사얀	NEAR 사무국 러시아파견 공무원
	〃	〃	러시아 대사관	이르쿠츠크주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명칭변경	한국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투자본부장
	체육분과위원회 신설	러시아	온다르 사얀	NEAR 사무국 러시아파견 공무원
	연합현장 개정	NEAR	박창호	사무국 기획총무과장

연합 주요활동 보고

-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보고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 사무국 주요활동 보고
(NEAR 사무국)
-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환경분과, 일본 토야마현)
교육문화분과(일본 시마네현)
방재분과(일본 효고현)
변경협력분과(러시아 이르쿠츠크주)
과학기술분과(대한민국 경기도)
해양어업분과(중국 산둥성)
에너지.기후변화분과(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러시아 마가단주)
- NEAR 신 비전 연구보고
(NEAR 사무국)

NEAR 제9차 총회 결과보고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NEAR제9차 총회가 2012년 7월24~27일 중국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서 개최되었다. “심화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공동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회원단체의 총회 참석자들은 제9차 총회 전체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등 회의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1. 회의 기본상황

(1) 주최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2) 주관 : 닝샤후이족자치구

(3) 참석규모: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지역 회원단체 및 오퍼버 단체, 비회원단체대표, 주중국한국대사관 및 주중국북한대사관 대표 등 5개국 280여명

(4) 주요내용

- NEAR주요 활동 보고 : NEAR제8차 실무위원회 회의경과보고, 사무국 주요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 회원지방정부 및 관련기관 대표 발표 :

- ①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심화된 지역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번영의 내일”

- ② 중국 후난성 “지역협력 심화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 ③ 중국 산둥성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의 협력심화로 추진되는 한·중·일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 ④ 일본 효고현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효고현의 대처”

- ⑤ 한국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

- ⑥ 한국 경기도 “경기도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 ⑦ 몽골 바양홍고르아이막 “동북아시아지역협력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 및 사막화”

- ⑧ 러시아 자바이칼변경주 “국제협력발전의 전망과 현황”

- ⑨ 한국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NEAR발전방향계획”

회원단체 대표의 발표를 통해 각 회원단체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협력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NEAR라는 공간을 통한 공동번영의 이념과 자신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총회 의제 심의 : 김재효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안사항 토론회에는 ①한국 전라남도가 제안한 “2014년 총회 유치 신청”, ②경상북도가 제안한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 그리고 사무국에서 제안한 ③“NEAR회비제 도입”, ④“신규회원 가입”, ⑤“NEAR청년 인턴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였다.

이 밖에도 총회참석자들은 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를 비롯한 “NEAR우정의 숲” 식수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시찰 참관을 통해 닝샤후이족자치구의 산업시설 및 관광사업발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닝샤에서의 약속-Gathering in Ningxia>예술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2. 주요 성과

(1) <닝샤선언>발표

회의기간에 전체 참석자는 동북아지역발전의 공동비전 제시를 위한 <닝샤선언> 발표에 동의했다. <닝샤선언>은 세계화 및 지역통합의 시대적 도전을 맞이하여, NEAR회원단체는 지역간 교류협력 추진하는 역사적 중책을 짊어 지고, 지속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지지로 신뢰, 호혜, 공영 및 화합의 동북아를 건립 할 것을 약속했다.

전체 참석자들은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서 지역의 발전촉진과 공동번영에 있어 상호신뢰, 협조,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제창했다. 먼저NEAR내부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NEAR의 영향력과 흡입력 증진시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한다. 또한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 발전, 번영 추진을 위해, 회원지방정부 외의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더욱 개방적인 동북아를 함께 건설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NEAR전체 회원단체가 단결, 협력하여 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2) 네 가지 행동강령

제9차 총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외 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네 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첫째,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에 대해 의결한다. 새로운 역사적 기준 아래 사무국을 장기 존속하는 것은 국제기구 간의 다각적인 조정 및 연락은 물론 회원단체간의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NEAR 사무국에서 제안한 청년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의 도입을 의결한다. 우리는 협력강화를 위해 회원단체들은 인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회원단체로 보내 연수사업을 진행한다.

셋째,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연합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의결한다. 우리는 회원 수 확대 및 회원지역 국가간의 협력강화는 NEAR의 발전 추세라고 일제히 인정한다.

넷째,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2014년 총회 유치 신청을 의결한다. 2014년 제 10차 총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한다.

(3) 두 건의 국제우호교류도시 체결

총회 기간 동안 닝샤후이족자치구와 몽골 바양홍고르아이막은 우호도시협정을 맺었다. 또한 닝샤후이족자치구는 러시아연방 자바이칼변경주와 우호도시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4) 다양한 언론매체의 광범위한 홍보로 NEAR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

행사기간동안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중국의 권위있는 언론매체인 "인민일보, 광명(光明)일보"와 인터넷 매체인 "인민왕, 신화왕", 또한 홍콩의 "대공보(大公報)", "문회보(文匯報)"등 33개 매체와 56명의 기자를 초청하였다. 행사에 관한 훌륭한 기사와 촬영, 사진 등으로 NEAR의 국제적 영향력은 대폭 향상되었다.

NEAR 사무국 주요활동 보고

NEAR 사무국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사무처장 입니다.

존경하는 연합의 의장이신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실무위원회 위원님. 제9차 NEAR 실무위원회를 대한민국 녹색의 땅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실무위원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라남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NEAR 사무국은 실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협조 및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상설사무국이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6개국 71개 회원단체, 13개 분과위원회 회원단체가 결합되어 공동번영과 교류협력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NEAR 사무국 주요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추진

-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회원단체의 각종 국제행사와 분과위원회 행사에 참석,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최선
- NEAR의 실질적 인적네트워크인 실무자워크숍도 개최, 연합발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금년 5월 포항에서 5개국 42단체 실무자 참석)
- 또한 러시아 투바공화국, 몽골 투브아이막 등 회원단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알선 등의 지원요청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 지속 증대

2.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연합 산하에는 1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제8차 실무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 생명의료분과위원회, 전라남도의 농업분과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되어 운영
- 사무국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 및 지원을 위해 상호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많은 단체의 참여를 유도
- 앞으로도 분과위원회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 코디네이트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행사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보완 개발해 나갈 계획

3. 국제 기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합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AP(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DP-GTI(유엔두만강유역광역개발기구),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의회), WTO(세계관광기구)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R-20(기후변화행동연합) 등 유럽 국제기구와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

4. 회원단체 파견직원 근무환경 개선

- NEAR 사무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8년째 순환근무를 실시

- 사무국에서는 파견직원에게 대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숙소와 체제비 지원, 한국어 연수실 운영, 문화체험, 자체워크숍 등을 실시
- 언어권별 전문위원들과 자료수집 정리, 책자발간 등의 대외업무를 공동 수행하면서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5. NEAR 연차보고서 및 뉴스레터 발간

- 연합 설립이후 처음으로 2012년 한해 동안 연합의 성과와 활동을 정리하여 되돌아 볼수 있도록 『NEAR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단체별로 배부
- 처음에는 2개 국어(한국어, 영어)로 발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6개 언어영역별(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로 확대 발간
- 또한 연합의 뉴스지인 NEAR News Letter를 격월지로 발간하여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등 연합의 활동상황과 회원단체 주요 홍보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

6. 연합의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용역 추진

- NEAR 창설이후 회원단체가 71개로 확대되고 1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질적,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용역 필요
-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전망과 더불어 사무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연합의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조사를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7.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및 지원

- 제8차 닝샤 실무위원회, 제9차 닝샤 총회 및 이번 제9차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의장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회의자료 수합, 책자 제작, 회원단체 참여독려 등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적극 지원
-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2014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전라남도 총회가 보다 좋은 제안과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합의 공동발전을 위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8. 회원단체 주요 관심사업 적극 발굴 추진

- 사무국에서는 닝샤 총회에서 회원단체간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제안된 **PioNEAR(청년인턴교류 프로그램)**에 신청한 러시아 투바공화국의 한국어 강사요청에 대해 2명의 대학생을 선발, 청년인턴으로 파견.지원하는 등 이를 확대 시행해갈 예정
- 또한, 동북아 경제, 사회, 문화등의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공모하여 연합의 이해를 도모하고 차세대 동북아 및 세계시민으로써의 정체성과 역량 함량을 위해 **NEAR 에세이공모사업**을 추진
- 더불어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부터 **NEAR 국제포럼**을 개최해 오는 등 많은 성과

끝으로

◦ 2012년 제9차 닝샤 총회에서 임기제 방식의 사무국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상북도에 사무국 장기존치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NEAR 사무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지방정부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대를 통한 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단체 실무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일본 토야마현

1. 환경분과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환경분과위원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0차 환경분과위원회(2011년 11월 개최) 이후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번역(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몽골어)한 뒤 회원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2. 개별프로젝트 실시상황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시된 개별프로젝트의 실시개요는 다음과 같다.

또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

(1) 제6회 국제환경포럼 '국경 없는 자연'(제안: 연해변경주)

- 기 간 : 2012년 7월 19일~20일
- 장 소 : 블라디보스토크시
- 참가자 : NEAR환경분과위원회 참가자치단체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
- 내 용 :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및 세션 등을 실시

(2) 황사를 대상으로한 광역 모니터링체제의 구축(제안: 토야마현)

- 기 간 : 2012년 4월~2013년 3월(조사시기는 2012년 3~5월)
- 참가자 : 3개국(일본, 한국, 러시아) 7개자치단체의 기업, 학교, 자치단체 등 53 단체
- 내 용 :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황사의 비래(飛來)상황을 계속적, 광역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간이모니터링(대기의 혼탁도 조사)을 실시

(3)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제안: 토야마현)

- 기 간 : 2012년 8월 18일~19일
- 장 소 : 일본 토야마현 히미市 등
- 참가자 : 4개국 9자치단체(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중/고교생 57명
- 내 용 : 각 참가자치단체 대표의 활동발표 및 표착물로 만든 조형물 제작, 해안청소,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선언 2012'의 작성 등을 실시

(4) 동해·서해 연안의 해변 표착물조사(제안: 토야마현)

- 기 간 : 2012년 가을
- 장 소 : 동북아시아지역의 해안
- 참가단체: 3개국(일본, 한국, 러시아) 15자치단체
- 내 용 : 해변의 표착물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바다 환경을 지키자' 라는 의식을 양성하기 위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해변 표착물을 회수/ 분별하여 중

류별로 개수 및 중량을 조사

3. 이후 활동계획

2013년 10월 토야마현에서 제11차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문화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일본 시마네현

'동북아시아 국제문화팔레트' 사업 개최

1. 기 간 : 2013년 11월 11일~11월 14일
2. 참가단체 :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예술극원(銀川芸術劇院)' 참가자 40명
3. 개최장소 : 시마네현내
4. 개최개요
 - (1) 개최목적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기 위해 시마네현내에서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예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사업내용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와 우호협정체결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 맞춰 극단을 초청, 시마네현민회관에서 1,500명의 관객을 초대하여 공연하고, 현내 시찰 등을 통해 시마네현민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5. 향후 활동계획

내년도에는 중국 지린성 '예능단'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 및 예능을 선보임과 동시에 시마네현민과의 폭넓은 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2013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NEAR 후원사업)의 개최

1. 개 최 일 : 2013년 8월 2일~8월 7일
2. 참 가 국 :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4개국 20여명)
3. 개최장소 : 시마네현내
4. 개최개요

(1) 개최목적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이 시마네현에서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상호이해 증진과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사업내용

- ① 참가지역 문화소개(각 참가지역의 문화소개)
- ② 복지 연수('복지'를 주제로한 간호시설 시찰 및 의견교환회)
- ③ 시마네현 지역문화 소개 (일본 전통복 체험)
- ④ 기타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교류

•각종 파티를 통한 참가자의 교류촉진

방재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일본 효고현

<머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고현 국제교류과장 모리야스 히데카즈입니다.

이번 실무위원회개최를 위해 힘쓰시고, 발표의 장을 만들어 주신 전라남도의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효고현에서는 올해 3월에 개최한 제11회 방재분과위원회의 실적보고와 차기 회의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고현은 1995년에 한신·아와지대지진을 경험하였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여러분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따뜻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진 이후 우리는 전세계 방재기관과 연계를 계속하면서 감재(減災)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쓰촨대지진과 아이티지진 등 전세계의 재해 복구·부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2010년 9월 효고현 지사가 재해위험경감의 중요성에 대한 보급·추진 등,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챔피언(방재·감재 리더)'에 임명되었습니다. 효고현에는 방재, 감재에 관한 선진적인 지견(知見)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효고현은 18년 전 지진 당시의 온정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담아, 자치단체방재에 관한 지견을 전세계에 전파해 왔으며, NEAR방재분과위원회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자치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제11회 방재분과위원회 실적보고>

올해 3월 효고현 코베시에서 제11회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국 16개단체 29명의 방재실무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방재연수회에는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진에 있어서의 효고현과 칸사이(関西)광역연합의 대응에 관한 강연, 참가자치단체의 사례발표, 국제방재기관 전문가와 참가자간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시찰로써 재해에 관한 각종 전시와 방재연구, 인재육성, 대규모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 등에 힘쓰고 있는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효고현의 광역방재의 중핵을 담당하는 '효고현광역방재센터', 실물크기의 건조물의 지진에 의한 파괴검사가 가능한 'E-디펜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연수회가 지역의 방재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4년 1월 또는 3월에 효고현에서 '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주제로,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당시 이웃주민에 의해 구조된 사람이 8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재해 시에는 주민 스스로의 방재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2014년 개최) 방재분과위원회에서

는 이점에 착안하여 강의·시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회원자치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라며, 아울러 시찰장소 등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해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고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등>

이 자리를 빌어 효고현의 관광정보 등에 관하여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얀 회반죽의 아름다운 성벽으로 알려진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城)', 펄 브릿지(Pearl Bridge)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규모의 '아카시해협대교', 일본 삼고탕(三古湯: 가장 오래된 3개의 온천)의 하나인 '아리마온천' 등이 국내외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코베쇠고기, 코베양과자, 세토나이해(海)의 회, 나다지역의 청주 등 효고의 먹거리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여러분, 효고현은 매력 넘치는 관광지와 맛있는 식사, 넉넉한 인심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맺음말>

효고현은 앞으로도 방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NEAR의 발전에 힘쓰며,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 증진에 공헌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경협력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에서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가 2012년 11월 7일에서 9일까지 4개국 14개 단체 총 44명이 참석하여 변경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와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자바이칼 정부와 중국 내 몽골간의 국경으로 흐르는 강수질문제 회담, 이르쿠츠크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주의 NEAR회원국간의 변경협력현황, 알타이지역의 국제조정위원회< 우리공동의 집-알타이>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변경지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를 건의하자는 제안, 러시아-몽골-중국의 국경검문소상호협의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몽골-러시아 국경지역인 <알탄불락-카흐타>의 국제자유무역지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회의 개최 결과>

1. 러시아와 주변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 건의
2. 공동의 프로젝트 제안: 러시아-몽골 국경검문소, 러시아-중국 국경검문소의 상호협의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3. NEAR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국경위반 행위 단속 및 범죄와의 전쟁업무추진
4. NEAR의 회원단체 범위 내에서 <알탄불락-카흐타> 국제자유무역지구로 만드는 방안 마련
5. 중국, 몽골 등 인접국가 지역의 러시아 육류수입쿼터제 할당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에 건의
6. 협력활성화와 무역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활동을 하는 참가자의 정보 교환의 공통기구 설립. 투자프로젝트 정보게재, 대외 무역활동정보 교환, 법률제안, 국제회의의 정보 교환을 위한 공통의 홈페이지 마련 (NEAR 홈페이지 활동도 가능)
7. 자연보호협력을 위한 공동작업국경지역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
8. NEAR의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국제협회-시베리아협정» 활동들이 «국제조정위원회-우리 공동의 집-알타이»의 경험을 공유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대한민국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경제정책과 윤영경 주무관입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과학기술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로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07년 제 1회에는 나노분야, '09년 바이오 분야, 그리고 '11년에는 혁신 클러스터 분야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10.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3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경기도 과학기술의 싱크탱크인(think tank)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동북아의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혁신과 관련된 혁신 주체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참석자는 한국, 중국, 몽골에서 3개국 총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기존의 동북아 자치단체 중심의 국제회의 행태를 탈피하여 지자체와 과학 관련 유관기관/연구소가 공동 참여하여 주제 및 사례발표와 더불어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제발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일 박사의 '경기도 혁신 클로스터 현황과 과제'로 경기도의 혁신 클로스터인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을 소개 하였으며 CEWIT* Korea 본부장인 임덕순 박사의 '혁신 클로스터 운영의 주요이슈'라는 주제로 혁신 클로스터 발전의 주요기능, 전략, 관리 측면에서의 개념정리 및 발전모델을 발전 단계를 제시하여 산업발전상황 및 문화적 특성 등 나라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적절한 혁신 클로스터 모델형태를 논의하였습니다.

※ CEWIT : Center for Wireless Information Technology

해외 주요참석 인사로는 중국 산둥성 과학원 과학연구처와 흑룡강성 과학기술청, 몽골의 바야혼 고르, 불강 등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청은 산업기술중심의 산업단지와 R&D 중심의 혁신단지를 소개하였으며 산둥성 과학원은 3개 지역에 14개의 R&D 연구소를 구축하여 과학인력 육성 및 벤처인큐베이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참가단체의 향후 협력기회 발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술혁신의 인프라인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력과제(안)을 채택하여 향후 참가기관 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발전 협력과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 클러스터의 발전, 활성화, 관련 정책 등의 연구관련 상호협력 추구
-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된 미팅,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대한 상호협력 추구
-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 정보교환 및 장단기 인력교류 상호협력 추구
- 기타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한 주요 협력사항 발생 시 상호협력 추구

당초 제4회 경기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과학기술분과위원회가 2013년 개최계획이었으나 과학기술관련 주관기관 내부 선정관련 조율이 필요하여 당분간 개최가 보류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내실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과학기술분과위원회 개최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중국 산둥성

2011년부터 전개한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 9월15일 ~ 18일까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NEAR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해양자원의 과학적인 이용을 위한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한국, 몽골의 회원단체 대표와 NEAR 사무국, 중국 농업부 어업국 및 국가 해양국 간부 및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해양어업전문가·학자, 그리고 신문매체 기자 등 120여명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산둥성 인민정부 지아완즈(賈萬志)부성장, NEAR김재효 사무총장, 중국 농업부 해양국 추이리펑(崔利鋒)부국장은 포럼에서 축사를 하였으며, 산둥성 해양어업청 허우잉민(侯英民)청장은 “해양자원의 과학적인 이용으로 만들어가는 화합과 번영의 동북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포럼에서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의 가오충제(高從堦) 원사(院士),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실의 명정구 박사 등 6명의 전문가는 해수이용을 비롯한 재생 가능한 해양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탄소흡수어업, 해양 생태계 수복 등의 내용으로 학술 보고를 진행하는 등 포럼은 NEAR사무국을 비롯한 참여회원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2. NEAR의 각 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를 비롯하여 NEAR워크샵에 참석하여 회원단체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둥성 인민정부와 한국 전라남도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도 적극 참여하여, 산둥성과 전라남도간의 해양어업분야에서 현실적인 제안과 관련업무 전개로 관련 협력 사항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현재 2013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행사를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양경제발전의 흐름과 수요에 따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2013년 10월 하순에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해양 신항산업 및 블루실리콘벨리 건설에 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NEAR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혹은 세계 각 국 해양경제발전, 특히 해양 신항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 경제, 기술 등 방면에 상호교류와 협력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의 블루실리콘벨리 건설을 소개하고, NEAR회원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3~4명의 해양 신항산업발전 관련 전문가와 중국 블루실리콘벨리 건설 관련 전문가 3~5명의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NEAR해양어업분과위원회 회원단체간의 교류회의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회원단체의 주관부서와 과학연구기구 담당자, 유명기업의 대표자들의 포럼참석을 환영합니다.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존경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NEAR이 설립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동북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자치단체 내에서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제안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분과위원회를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난 해 제1회 에너지기후변화 분과위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4개국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우리시의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 방문을 통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제고하고, 회원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자랑하는 팔공산 방문과 약령시의 한방체험을 통해 회원 여러분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제2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지난 해 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2회 분과위원회 개최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에너지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회원단체 간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분야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그린에너지엑스포 및 LED 박람회 참여 기업 등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산·학·연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사태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좋은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하여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단체들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를 통해 얻게 될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티로서의 이미지와 세계 유수 기업의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정보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만들어 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낙동강 태양광, 신천 소수력, 최정산의 풍력을 비롯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LED 조명 보급 가속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이자 에너지 효율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세계에너지총회, 세계물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NEAR 분과위원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는 처음 개최하여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개최할 제2회 에너지기후변화 분과위원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광물자원개발, 조정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러시아 마가단주

NEAR 광물개발, 조정 분과위원회가 2012년 8월 1일에서 3일까지 “광산업 및 관련산업 투자에 관한 법제, 지역 소개, 광물 생산지의 전망, 광산업체 대표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러시아 연방 마가단주에서 개최되었다. 마가단주는 NEAR 회원지방의 경제발전 전략 및 광산업 관련 부서, 광산업체 및 투자회사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 기간 : 2012.8.1 ~ 2012.8.3

※ 장소 : 러시아 마가단주

※ 참가 : 3개국 4개단체(2회원단체)20명 러시아2(마가단주, 사하공화국), 중국(주식회사 광산업회사1), 일본1(주블라디보스톡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

1. 개요

- 일시: 2012. 8. 1~8. 3 (2박 3일)
- 장소: 러시아 마가단주
- 참석자
 - 3개국 4개 단체 (일본1, 중국1, 러시아2) 20명
 - NEAR사무국 사무총장의 2명

2. 주요회의 일정

- 마가단주와 천연자원 잠재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엘레나 수라노바: 마가단주 행정부 천연자원국)
- 마가단주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자 경험
(류민리: 주식회사 <광산업 회사> 부사장)
-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투자 잠재력
(알렉세이 예피모프: 사하공화국 경제산업정책부 광산업체 귀금속세공생산과 과장)
- 마가단주 광산채굴의 혁신적 정착
(발표자: 갈리나 골로보코바: 마가단주 행정부 투자정책과 과장)

3. 결의사항

- NEAR회원자치단체관련사항
 - 역내 천연자원에 관한 정보 공유
 - NEAR 회원지역 광산업체 대표들을 분과위원회로 참여 유도
 - 민-관 협력 시스템 지원

○ NEAR사무국관련사항

- 분과위원회 결과를 회원단체에 통보
- 2014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회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 개최 지원
- 천연자원 개발의 공통 문제점분석
- NEAR 회원국가들의 공동 자원개발의 가능성 모색
- 유용광물 채굴분야의 구체적인 투자프레젠테이션 제시

NEAR 신 비전 연구 보고

NEAR 사무국

* 연구 수행 : 대한민국 경북대학교 부설 아시아연구소

I. 연구 배경

- o 1996년 창설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는 6개국의 76개 광역지방정부(5개 옵저버 포함)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지방정부간 국제협력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창설 25주년에 이르게 됨.
- o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며 그 중심에 동북아시아가 존재하고 있으며, NEAR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0년대를 내다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New Vision 2020)'이 필요한 시점임.
- o 특히, 21세기에는 지방정부간 또는 지역간(interregional level)의 교류, 협력 체제 형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국가간의 협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o NEAR는 동일 지역내 '상설사무국'의 장기적인 운영이 확보 되고, '다양한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창설 당시의 '느슨한 형태'의 교류협력 조직에서 탈피하여, 회원지방정부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재정립이 필요함.

II. 현 황

- o 창설 이래 지속적인 성장 발전 :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1개 광역지방정부 정회원과 5개의 옵저버 회원으로 확대.
- o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등 13개의 주제별, 산업별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o 2005년부터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고, 2012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상설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 o 사무국의 구성은 1차 2과 체제이며, 국가별 전문위원(6명)과 회원지방정부의 파견인력(한국 경상북도 5명, 중국 1명, 일본 1명, 몽골1명, 러시아 1명)으로 운영

- 사무국 운영재정은 한국의 경상북도가 전담하며, '회비제'의 도입은 계속 유보되고 있음.
- 여타 연합의 활동(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비용은 개최회원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참가 회원의 참가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음.
- 회비제 도입 미비와 재정적 취약성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수행 역량 부족 등에 따라 회원의 소속감, 관심도, 참여도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총회나 실무위원회 개최시 회원 지방정부의 책임자급 참여가 부진함
- 다수 회원에 비해 연합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governance 구축이 미흡함.
- 연합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지원, 관리 역량의 체계화가 부족하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연합의 연구, 기획능력도 부족함 .

III. 새로운 발전 전략

1. 미션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지방정부)들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 한다”

=> “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연계협력과 동반성장을 증진하여 회원단체 구성원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포함하는 인간 안보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로 추상적인 설립 목적 대신 구체화가 필요

2. Governance의 재정립

- 의장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 사무총장의 정책결정권 강화 및 자율성 확보
- 사무국 및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사, 연구, 기획 기능 보완
- 의장단, 지도부의 구성
 - 의장, 사무총장 + 국가 단위의 상임 대표를 선정하여 상임위원회(Bureau) 기능 부여(국가단위로 2개 회원지방정부 선정)
 - 주요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에 따른 사전적 조율 기능 부여
- 13개 이상에 달하는 현행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기능별로 대통합, 3-4개의 위원회(committee)체제로 운영하며, 기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기능을 각 위원회내의 분과위원회 활동

으로 흡수

- 신설 '위원회'에는 위원장(president)선정, 책임감 있는 운영 유도
- 각 위원회별로 세부분야별(sub-) 활동을 위해 이동 개최를 허용
- 정기적인 위원장 회의 개최(운영 방향 협의 등)

3. 사무국의 역량 강화

- o 사무국의 위치는 국제컨벤션 기능과, 접근성의 좋은 지역으로 이전 검토(단,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재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후보지 검토)
- o 회원 소재 국가단위로 연락 사무소 또는 지부를 결성하여, 국가 단위의 네트워킹 강화와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
- o 회원 지방정부의 파견 인력에 상응하는 상근 전문요원의 확대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지속성 확보

4. 연합의 재무구조 재정비

- o 현행 재무 구조는 가)사무국 운영비와 나)연합의 사업 운영비용으로 구분
 - 사무국 : 대한민국 경상북도 전담
 - 분야별 사업 : 각 주관 회원단체가 전담
- o 현행 현장 :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회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장기적으로 조정 필요
- o 장기적으로 연합의 발전과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비제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사무국 경상운영비 : 경상북도. (단, 전체 운영예산의 50% 한도내로 설정)
 - 사업 관련 예산 : 장기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 (단, 전체 연합 예산의 50% 범위내에서 회원간 분담 원칙)
- o 회비제는 운영원칙
 - 회원 소재 지역의 국가별 경제력 등에 의거한 차등제
 - 단, 회원별로 일정액의 기본회비 부과+나머지는 차등 납부 방식

IV. 연합의 새로운 사업 역량 개발

○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따라 연합(NEAR)의 인적, 재무적 역량이 확충되어야 실행 가능성을 전제함.

○ 가)인적 교류, 나)경제통상교류, 다)문화 교류 분야로 구분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중심의 새로운 사업 개발

○ 새로운 사업 분야

- 청년 인턴 교류프로그램(Pio NEAR : Professional internship program of NEAR)
- NEAR 순회교육사업
- NEAR 문화유산 지정사업(문화재 보호, 역외 유출방지, 유출된 문화재 환원 등)
- NEAR 상품 인증사업, NEAR 전문매장 개설, NEAR 우수상품 전시회, 동북아 공동·공유 교육콘텐츠 발굴 등

회원단체 대표 발표

(NEAR 발전방안 제안 등)

- 협력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중국 후베이성)
- 공동번영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심화(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협력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중국 후베이성

존경하는 박준영 NEAR 의장님 겸 전라남도지사님

존경하는 김재효 NEAR 사무총장님,

그리고 친구 여러분:

먼저, 후베이성을 대표하여 이 곳 아름다운 한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단체인 전라남도과 NEAR사무국의 정성스런 준비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 발전함에 따라 국제간의 교류는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발전에서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 지역은 국가간 지역협력의 기회가 무한하며, 그 의미 역시 매우 큼니다. NEAR사무국은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무대로써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단체를 비롯한 모든 회원단체와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협력, 학술연구회 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우호교류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NEAR는 부단히 그 교류영역을 확대하여, AER과 R20등 국제 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NEAR의 대외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 가며, 국제적 영향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국가간의 교류협력과 깊은 우정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것에 저희는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후베이성은 중국 중부에 위치한 주요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높은 문화적 기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견고한 산업인프라와 뛰어난 과학·교육적 역량,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장함과 수려함을 뽐내는 후베이의 장강삼협(長江三峽)과 신비로운 원시삼림의 매력적인 선농자(神農架), 유네스코에 세계문화 자연유산에 등재된 도교의 성지 무당산(武當山), 또한 한국과 일본의 친구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삼국지의 유적지 등 후베이의 곳곳은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2006년 NEAR에 가입한 이래로, NEAR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NEAR의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적교류, 관광, 방재 등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협력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후베이성을 대표해 NEAR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 회원단체 대표, 각 계 인사 여러분들의 후베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후베이를 돌아보시고 함께 발전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NEAR를 통해 후베이성과 동북아 각 국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이 풍부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성립합니다. 양국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화합·발전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기초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측면의 노력과 각 종 업계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민간 교류협력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 및 자치단체, 사회조직,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 방위적인 교류협력의 강화가 보다 중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후베이성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회원지방정부간의 상호 교류를 보다 심화 시켜야 합니다.

NEAR 전체적인 활동 틀 안에서, 분과위원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회원단체간의 직접적인 정부, 의회, 경제무역 및 사회 각계 인사의 인적 교류를 장려하고 회원단체간의 우호도시 교류를 중요시하고 또한 추진하기를 건의합니다.

둘째, 정보교류의 강화입니다. NEAR사무국의 주도아래, 간행물,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 전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원간의 정보교류 루트를 확장하고, 회원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유력한 정보를 지원 합니다.

마지막으로 NEAR의 왕성한 발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이번 회의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심화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
존경하는 김재효 사무총장님,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NEAR와 각 회원단체를 어떻게 이용하면 보다 더 교류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사항과 제안하며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1. NEAR사무국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우호관계 체결을 추진합니다.

현재, NEAR는 많은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단체는 어느 정도의 시(市),주(州),현(縣),구(區)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NEAR실무자급 회의나 총회가 개최될 때, 회원단체 외에도 옴저버단체, 비회원단체, 관련 대사관 대표가 출석합니다. 동시에 모든 회의 참석 대표자는 소속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대량 교류협력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에, 저희는 NEAR각 회원단체가 지역의 국제우호도시 체결 계획에 따라 관심이 있는 NEAR회원단체 아래에 소속된 기초단체는 국제우호관계 설립에 관한 의향 및 정보를 NEAR사무국으로 사전에 보내고, NEAR라는 유익한 공간을 통해 1차적인 선발을 진행, NEAR사무국은 관련 수요에 따라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며, 중간에서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건의합니다. 국제우호관계 체결을 원하는 쌍방은 기본적인 협의를 거친 후, NEAR가 개최하는 실무자급 회의나 총회 때, 양 지방정부는 대표를 보내 국제우호도시관계 협의서나 의향서를 체결하도록 합니다.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이 우호도시 체결 의식 및 행사 만을 위해 가는 출장이 생략되는 등 거리상의 번거로움 등 줄 일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원단체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번영을 촉진합니다.

최근, NEAR의 많은 회원단체들은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많은 양의 국제교류협력관련 정보를 집결시키며, 그 지역의 대외개방 및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EAR회원단체는 계획한 국제행사 정보를 사무국에 전달하고, NEAR가 이러한 정보를 발표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회원단체 혹은 기업들은 이런 유익한 NEAR의 정보를 통해, 정보를 선별 및 공유하여 다른 회원정부와 실질적인 교류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AR형제 회원단체가 개최하는 대형 국제행사를 행사를 지지한다는 원칙에 근거, 적극적으로 관련행사에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경제사회 등 전체적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위원회 의제

- 2016년 총회 유치 신청(몽골 우부르항가이아이막)
- 2016년 총회 유치 신청(러시아 자바이칼변경주)
- 2016년 총회 유치 신청(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명칭 변경(대한민국 경상북도)
- 체육분과위원회 신설(러시아 사하공화국) * 별도자료배포
- 연합헌장 개정(NEAR 사무국)

2016년 총회 유치 신청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아이막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19개의 쑤(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63500km², 인구는 약 11만명입니다. 아이막의 주요 도시인 아르웨헤르는 수도 울랑바타르에서 42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이막의 주요 경제는 농업이며 특히 목축업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가축수로는 몽골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지역 총생산의 34%를 식품분야, 19%를 에너지 난방업 분야, 23%를 목재, 12%를 광산업이 차지합니다.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은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유적지와 함께 전통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90%가 몽골제국의 옛 수도였으며 북방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우리아이막의 하르허링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2006년 부산총회 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그 동안 총회, 각 분과위원회 등 여러 행사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키며 정보교환, 의제 해결, 사례연구 등의 교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결과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연합 행사에 최근 3년 동안 몽골에서 약 150명 정도 참가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연합 사무국으로부터 2016년 제11차 총회유치를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았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은 그 동안 직원을 연합사무국에 파견한 경험이 있으며, 또는 그 동안 몽골에서 총회를 유치한 적이 없었던 점 등 회원단체들의 균형있는 총회유치를 고려해 봤을 때 2016년도 총회를 울랑바타르시에서 개최할 의향입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몽골의 상황을 고려해 봐도 총회 개최 장소는 몽골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몽골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 울랑바타르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실무위원회도 동시에 개최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회를 우부르항가이 아이막에서 울랑바타르시에 개최하게 되면 국가를 알리고, 회원단체들과의 교류확대 및 지역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는데 따르는 예산은 우부르항가이아이막에서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움으로 몽골의 각 아이막과 울랑바타르시의 공동 예산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몽골 정부, 외교부 또는 각 아이막에 제안하였으나 그 동안 대통령선거, 몽골 최대의 축제인 나담 등 바쁜 시기여서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우리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어 2016년에 몽골에서 제11차 총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NEAR 총회 유치 신청

러시아 자바이칼변경주

자바이칼 변경주는 러시아의 남아시아에 위치하며 주도는 치타시입니다.

자바이칼 변경주의 총 면적은 431,900km²로 러시아 영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행정구역 중에 10번째로 면적이 크며 시베리아 연방관구 중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와 이르쿠츠크주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으로 남쪽과 서북쪽으로 부랴티아 공화국과 이르쿠츠크주를, 동북쪽과 동쪽으로는 사하(야쿠티아)공화국과 아무르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자바이칼에서 남쪽으로 1064km 떨어진 곳은 중국과 접경지역이고, 동남쪽으로 863km 떨어진 곳에 몽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바이칼은 태평양과 동남 아사아국들과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바이칼의 인구는 1,098,800명이며 (러시아 연방 총 인구의 0.8%) 인구밀도는 2.6명/km²입니다. 자바이칼은 120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며 구성비율은 러시아인이 89.8%, 부랴티아인 6.1%, 타타르인 1% 미만,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 등이 있습니다.

자바이칼의 기후는 유라시아의 깊은 내륙과 대양과 바다가 멀리 떨어진 극심한 대륙성 기후이며 해수면보다 지리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바이칼의 하층토는 유용한 광물들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광물들이 있는데 그 중 금, 구리, 아연, 납, 철을 비롯 석탄, 비석, 마그네사이트 등이 있고, 러시아에서 채굴되는 대부분의 우라늄과 텅스텐은 이곳 자바이칼에서 생산되며 러시아 채굴량의 2/3는 탄탈, 1/3은 형석과 몰리브덴 자원이 분포합니다. 대표적인 거대 광산 산지는 금과 몇 종류의 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노보쉬로킨스키 산지와 금과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쥐렌스키 산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곳들은 채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품 생산과 가공을 하는 곳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 목재입니다 (자바이칼의 전체 산림 면적은 3130만 ha). 오논-아르군스키 지역을 제외한 자바이칼의 전체 산림지역은 러시아의 산업 개발을 위해 충분한 목재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자연환경은 풍부하고 다양한 동, 식물군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자바이칼은 1800여종의 식물과 80여종의 포유동물, 350여종의 조류, 60여종의 어류를 포함한 500여종의 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희귀 동, 식물과 전형적이고 독특한 자연 환경, 타이가로 이루어진 산과 스텝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곳의 자연보호구역 (1973년 소혼진스키 보호구역, 1987년 다우르스키 보호구역 지정), 18곳의 수렵금지구역, 알하나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바이칼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외무역활동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특히 중국,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경제협력을 하기에 유리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바이칼은 대외무역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세계 54개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역의 주요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목재, 펄프 제품, 금속과 금속가공품, 기계, 장비, 차량, 식품 및 농산물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식품과 기계제작품입니다.

자바이칼과 접경국인 중국, 몽골 지역과의 교류 협력은 지속적이며, 동적인 특징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호혜의 관계를 지속시켜나갈 것입니다. 자바이칼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지리적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대외경제활동 발전 전략은 외국투자자 유치, 외국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국경의 인프라 개선, 국경통관업무의 최적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대외경제활동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자바이칼의 치친스키 공항은 유럽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국제기준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며 동남아로 비행하는데 다른 외국공항에서 급유할 필요 없이 한번에 갈 수 있습니다.

자바이칼의 철도망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아무르-바이칼 철도가 지나갑니다. 자바이칼의 전체 철도의 길이는 2400km로 투자 프로젝트 중에 «남쪽으로 향하는 문»이라 명명하는 철도 부분재건사업이 있습니다.

자바이칼 변경주는 러시아 지역들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인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천연자원 잠재력, 또한 매우 유망한 사회, 경제, 문화, 투자 발전을 지니고 있는 곳이며, 동시베리아 지역 중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2016년 NEAR 총회 유치 신청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우수한 여러 회원단체들 가운데 이르쿠츠크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총 책임자이며, 전 회원단체의 상호협력과 우호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재효 NEAR 사무총장님께 따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NEAR라는 울타리를 통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며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 협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제협력이라 함은 국제기구의 활동에 이르쿠츠크주가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국제기구의 활동 중에 NEAR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연합의 창설 멤버이자 변경협력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2012년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를 이르쿠츠크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 또한 우리 주에 있어서 적잖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르쿠츠크시에서 열리는 국제바이칼경제포럼에서 상하이협력기구산하 사업으로 기업협의회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CIS 국가간의 무역을 추진하는 일본기업협회 ROTOBO와 정기적으로 지역의 투자환경 및 사업수행조건 등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국제행사 조직에 따라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2013년에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아시아 사회경제 위원회와 유사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연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의 2015년 까지 임기인 의장 후보 진출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안가라강 지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력관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르쿠츠크주 정부와 KOTRA는 이르쿠츠크주와 한국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와 상호 협력하는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가라강 지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곳이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과 독특한 자연조건을 갖춘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르쿠츠크주는 국내에서 산림, 금, 석유, 가스, 석탄 등의 매장이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이 지역

의 중요한 자원 잠재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산업기반이 형성됩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연료-에너지, 광산업, 임업, 석유화학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알루미늄 산업은 기계제작에 영향을 주어 특별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 현존하는 기본 인프라,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자원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중요한 관광, 레저시설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양가라강 연안의 매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담수 - 깨끗한 바이칼 호수와 직접적으로 근접하고, 멋진 해안 경관, 독특한 동, 식물군, 급류가 흐르는 강과 폭포가 어우러진 광대한 산악지대, 넓은 호수, 그림 같은 계곡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NEAR의 헌장에 의거하여 동북아 지역들간의 경제, 문화,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며, 손님맞이를 좋아하는 저희 주에서 NEAR의 회원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연합의 쟁쟁한 경쟁 회원단체 중에서 이르쿠츠크주에게 제11차 NEAR 총회유치를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대한민국 경상북도

« 필요성, 제출배경 »

- NEAR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교류분과 위원회로 확대·변경하여 인문, 경제 융합을 통한 동북아 지역 창조 융합 경제 달성

□ 현 분과위원회(경제통상분과위원회)

- 설립배경 : '98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시 경제분과위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선정
- 주요내용 : 회원단체간 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통상 촉진
 - 통상촉진 세미나, 투자정책 정보교류회, 통상상담, 특산품 및 카탈로그 전시, 산업시찰 등

□ 안건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가칭)

□ 명칭변경 사유

- 경제분야 이외에도 인문교류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정부 인문교류 및 문화융성 국정과제사업 연계 협력 추진
- ※ 한·중 인문교류, 한·중·일 지방정부회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POST 이스탄불 엑스포, 새마을 인문교류 세계화 등 사업 구체화 및 확대

□ 사업내용

- 동북아 인문·역사 교류 확대
 - NEAR 회원단체간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지역 문화융성
 - 동북아 공동·공유 인문분야 콘텐츠 발굴로 지역간 이해증진
- 동북아 경제통상 교류 내실화
 - 통상협력 네트워크 활용한 동북아 창조융합경제 교류 증진
 - 모범마을, 새마을 운동 등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경제발전 정보 공유

연합헌장 개정

NEAR 사무국

1. 제안이유

◦ 「연합헌장」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현재 실무위원회가 격년마다 총회가 개최되는 전년도에 개최되고 있어 위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다음은, 제12조의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2012년 제9차 닝샤 총회에서 의제로 경상북도가 사무국 장기존속을 신청하여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연합헌장」제1조에 의하면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의 개념을 회원단체가 소속하는 국가별로 달리해석 하고 있어 적용에 회원단체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종류도 기초·광역 등 여러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범위를 명백히 함을 물론, 회원단체간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또한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현재 실무위원회를 2년마다 총회가 개최되는 전년도에 개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제10조) 개정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도 총회에서 개정하고자 함

◦ 그리고, 제9차 닝샤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사무국의 장기존속이 결정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 존속한다. 단,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관련조항(제12조) 개정(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도 총회에서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연합헌장」제1조에 의하면 연합의 명칭을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별로 ‘자치단체’의 해석상 상호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종류도 기초·광역 등 여러개 있어 범위가 모호하여 연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연합헌장」의 ‘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도 총회에서 개정하고자 함

[회원단체 언어별 “자치단체” 표기예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regional Government (지방정부)	地方政府	自治体	자치단체	Орон нутгий н захиргаад (지방행정)	реги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지방행정)

3. 제안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u>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u>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운영) (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u>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격년으로 총회가 개최되는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u>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둘 수 있다. <u>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u>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기구를 둘 수 있다. <u>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u>

□ 「연합헌장」내용 중 “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정

[연 합 헌 장]

전 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② 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③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④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등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 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7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10.10.28 개정)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2) 감사는 각 국당 1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호와 같다.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 (4) 회비의 결정
- (5) 연합 헌장의 개정
-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8)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자치단체는 각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제9조 제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98.9신설)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98.9신설)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①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예산편성 및 집행
- ②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③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 ④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분담한다.

가.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 나머지 반은(C=A-B)는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다.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D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 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98.9 신설)

제17조(등록) 1.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98.9 신설)

2.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98.9 신설)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단체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 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연합현장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NEAR 회원단체 현황

聯合憲章

전 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② 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③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④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등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7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10.10.28 개정)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2) 감사는 각 국당 1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호와 같다.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 (4) 회비의 결정
- (5) 연합 헌장의 개정
-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8)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자치단체는 각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제9조 제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98.9신설)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98.9신설)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①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예산편성 및 집행
- ②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③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 ④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부담한다.

가.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 나머지 반은(C=A-B)는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다.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D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98.9 신설)

제17조(등록) 1.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98.9 신설)

2.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98.9 신설)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단체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 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경제통상분과위원회
- (2)환경분과위원회
- (3)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08.9.2.통합)
- (4)방재분과위원회
- (5)변경협력분과위원회('04.9.5)
- (6)과학기술분과위원회('06.9.14)
- (7)해양·어업분과위원회('08.9.2)
- (8)관광분과위원회('08.9.2)
- (9)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10.10.28)
- (10)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10.10.28)
- (11)여성·아동분과위원회('10.10.28)]
- (12)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11.7.19)
- (13)농업분과위원회('11.7.19)

제3조(기능) 1. 각 분과위원회는 제안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참여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1.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이하「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공동코디네이트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신방식(우송, 팩시밀리 등)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임기 내에 1회이상 회의 또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회 운영시 회원단체의 참가는 5개국 10개 이상 단체의 유지를 원칙으로 노력한다.

6.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참가) 1. 모든 회원단체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제7조(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제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회의 결과를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규정에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효력)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합(NEAR) 회원단체 현황

■ 회원단체 현황 : 6개국 71개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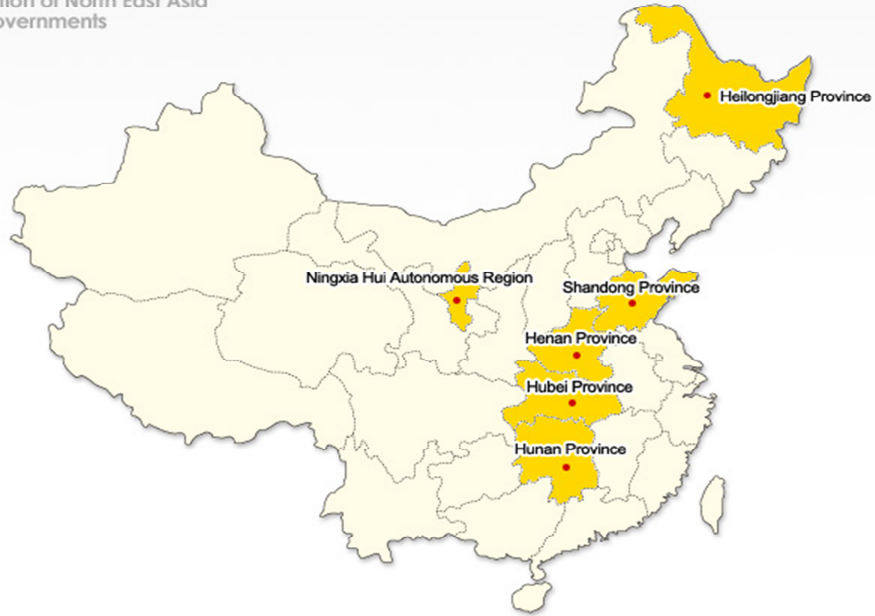
국 가	단체수	자 치 단 체 명
중 국	6	.헤이룽장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산둥성
일 본	10	.아오모리현.야마가타현.니이가타현.토야마현.이시카와현 .후쿠이현.교토부.효고현.돗토리현.시마네현
한 국	16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북 한	2	.함경북도.나선특급시
몽 골	22	.울란바타르시.아르항가이아이막.바양울기아이막 .바양홍고르아이막.불강아이막.고비알타이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다르항오울아이막.도르노드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돈드고비아이막.자브항아이막 .오르홍아이막.우브르항가이아이막.움느고비아이막 .수흐바타르아이막.셀렝그아이막.투브아이막 .웁스아이막.흙드아이막.흙스쿨아이막.헝티아이막
러시아	15	.부랴티야공화국.사하(야쿠치아)공화국.튀바공화국 .알타이변경주.자바이칼변경주.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하바롭스크변경주.아무르주.이르쿠츠크주 .캄차카변경주.마가단주.사할린주.툼스크주.케메롭스키주

■ 읍저버 단체 : 2개국 5개 단체

국 가	단체수	자 치 단 체 명
중 국	4	.텐진시,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일 본	1	.야마구찌현

China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Japan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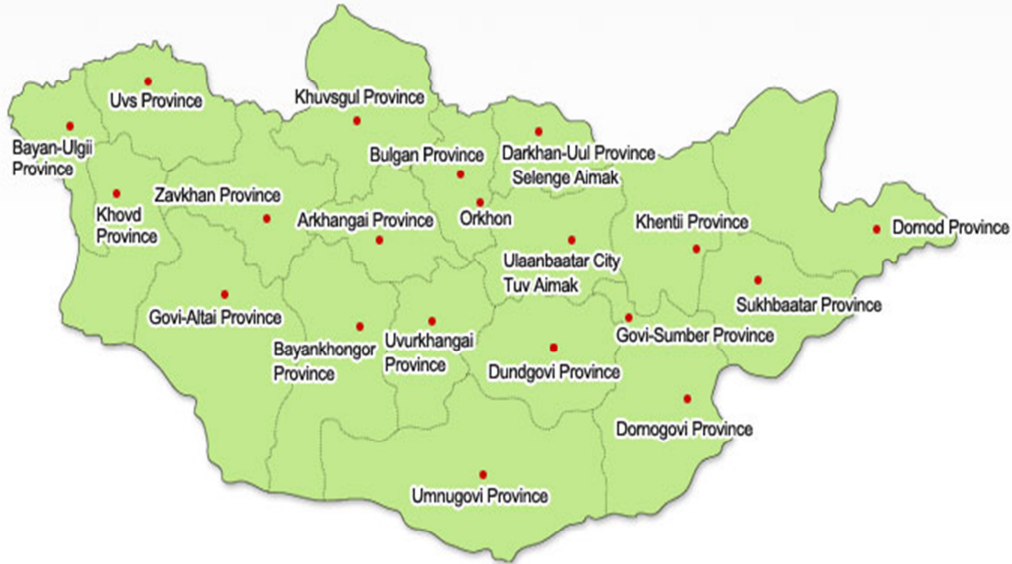




Mongolia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Mongolia Regional Governments



Russia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Russia Regional Governments



memo[illegible]

memo[illegible]

memo[illegible]

